

# 불교학연구소 마당에 웬 카지노장 설립?

캄보디아 불교학의 보루인 프놈펜 불교학연구소(Phnom Penh's Buddhist Institute)가 존립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 85% 이상이 불교도인 캄보디아이지만 자본의 굴삭기 앞에서 주저앉고 있는 셈이다.

〈프놈펜포스트〉지는 5월 27일(현지시간) “홍콩의 증권 카지노 회사인 나가(Naga Corp)가 진행하고 있는 프놈펜 내 카지노 시설 공사로 불교학연구소의 존립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이곳에 적을 둔 불교학자들조차 흩어질 처지”라고 보도했다.

또한 〈프놈펜포스트〉지는 “최근 캄보디아 종교부 장관이 불교학연구소와 후 센(Hun Sen) 공원 사이의 벽을 철거하도록 허가했다”는 데 주목, “이번에 철거가 결정된 벽은 불교학연구소의 외벽에 해당 하는 것으로, 사실상 불교학연구소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나가 측의 카지노 개발 계획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놈펜 불교학연구소의 외벽이 허물어진 모습. 프놈펜 시는 최근 “불교학연구소 부지 일부를 변전소 부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구소 맞은편에 카지노 시설이 들어서면서 늘어나게 될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 캄보디아의 보루 프놈펜 불교학연구소, 존립위기

### 홍콩 카지노 회사 나가(Naga), 프놈펜 시에 3천억 투자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가 측의 개발 공사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해 외벽 철거에는 동의했지만, 캄보디아 불교학의 성소인 불교학연구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나가 측의 개발

공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 당국과 각을 세웠다.

그러나 불교학연구소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프놈펜포스트〉지는 이명을 요구한 불

교학연구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시 당국이 연구소 부지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대부분 카지노 회사 나가 측에 매매할 것”이라고 전하는 한편 “카지노 회사 나가 측은 지난 2월 프놈펜 지역 카지노 사업 개발에 3억6,900만 달러(약 3천7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어, 이 같은 주장에 개연성을 더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나가 측의 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변의 자연경관 대부분을 잃어버린 불교학연구소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최대 30%까지 급감했다”고 전한 불교학연구소 측은 “시 당국은 물론 카지노 회사 나가 역시 연구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길 바라고 있는 듯하지만, 우리는 매일 이곳에서 불교학을 연구하며, 관련 학자들과 학생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불교학 연구소는 1921년 시소왓(Sosovot) 당시 국왕이 ‘크메르도서관(Khemra Bannalai)’이란 이름으로 설립됐다. 이후 1925년 ‘왕립도서관(Preah Rai Bannalai)’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30년 ‘불교학연구소’로 다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연구소는 캄보디아 문화와 언어, 역사, 불교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쁘레아 시하누크 랏 불교 대학 (Preah Sihanouk Rak Buddhist University)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명상, 똑똑한 뇌 만들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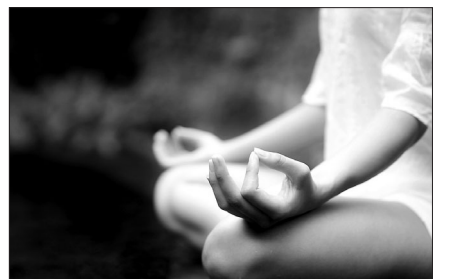
## 노르웨이 세인트 올라브스(St Olavs) 병원 연구 결과 발표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꾸준한 명상시간을 가져주면 뇌 세포가 활성화돼 마음이 안정되고 사고력이 향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트론헤임 세인트 올라브스(St Olavs) 병원 공동 연구진은 일정한 명상시간이 뇌 활성화에 기여해 기억력, 사고력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명상은 각종 잡념을 거두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몰입시켜 내면 자아를 확립시켜주는 정신집중 방법의 하나로 보통 종교수행 과정에서 많이 사용된다. 명상법은 크게 ‘집중적 명상’, ‘비지시적 자발적 명상’으로 나뉘는데 두 방법의 차이점은 ‘강제성’이다. 집중적 명상은 호흡 하나하나부터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자발적 명상은 그 누구도 지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몰입해야 하는데 연구진이 주목한 방법은 두 번째인 ‘비지시적 자발적 명상’이다.

연구진은 일정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비지시적 자발적 명상’을 수행하도록 유도했고 그 동안 참가자들의 뇌를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스캔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했다. 이후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운데 명상이 수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의 뇌 세포가 상당히 활성화되었고 일부에서 기억력과 사고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기까지 했다. 특히 감각정보를 분석하고 사고력, 기억 저장을 담당하는 대뇌 쪽 신경세포



최근 노르웨이의 병원 공동연구진은 일정한 시간 동안 명상을 하면 뇌가 활성화된다고 밝혔다.

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이 실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먼저 명상이 마음을 비우고 뇌를 쉬게 한다는 기존 인식과 달리 오히려 뇌를 바쁘게 움직이게 한다는 점이 나타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보다는 명상을 해주는 것이 뇌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오슬로 대학 스벤 다벤저(Svend Davanger) 교수는 “우리가 쉴 때 사고력, 기억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대뇌 영역이 주목한 방법은 두 번째인 ‘비지시적 자발적 명상’이다. 연구진은 일정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비지시적 자발적 명상’을 수행하도록 유도했고 그 동안 참가자들의 뇌를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스캔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했다. 이후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운데 명상이 수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의 뇌 세포가 상당히 활성화되었고 일부에서 기억력과 사고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기까지 했다. 특히 감각정보를 분석하고 사고력, 기억 저장을 담당하는 대뇌 쪽 신경세포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Journal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에 최근 발표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미얀마 로힝야족 국제지원 청신호

## 아라칸 불교도, 'UN INGO 감시단' 결성

### “로힝야족 ‘구호품’, 바르게 전달하자”

미얀마에서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을 지원하고 있는 UN INGO의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무슬림 소수민족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미얀마 아라칸 주의 17개 마을의 불교도들이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을 위해 'UN INGO 감시단'을 결성했기 때문이다. (IRRAWADDY) 지에 따르면, 아라칸 주의 불교도 20명이 'UN INGO 감시단'을 결성하고, 국제 사회에서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에게 건넨 구호품들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니오 아이에(Nyo Aye) 감시단 간사는 “우리는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의 ‘바람’을 정확히 전달하고, UN 산하 NGO들이 그것에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통로 구실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아라칸 주의 민족주의 그룹은 영양실조 등에 시달리고 있는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국제 인도주의 지원을 반대해 왔다.

따라서 이번 불교도들의 'UN INGO 감시단'은 아라칸 주의 민족주의 그룹에 제동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유엔 사무소 피에르 페론(Pierre Peron) 대변인은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의 지원하는 데 지역 사회의 협조를 얻지 못해 활동 역량이 30%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며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 결성된 ‘감시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라칸 주에 마련된 로힝야족의 캠프에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로힝야족 아이들.

한편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은 최근 “무슬림 로힝야 족을 받아들일 국가가 있다면, 어떤 나라든 모두 내보내 주겠다”고 국제사회를 향해 천명했다. 이에 대해 로힝야 족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미얀마 정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유엔난민기구 (UNHCR)가 이 제안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미얀마에 살고 있는 로힝야 족의 수가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법당 마룻바닥에 새겨진 ‘발자국’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그러면 오래된 목조 법당에서 20년 동안 오체투지를 했던 어떻게 될까? 〈매트로〉지에 따르면, 그 결과는 ‘자국(사진)’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후아 히(Hua Chi·70) 스님이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칭하이성(Qinghai) 장족 자치주인 퉁런(Tongren)에 있는 사원에서 매일 오체투지를 했는데, 그 자리에 3cm 깊이의 발자국과 함께 팔꿈치에 눌러 패인 2개의 홈을 남겼다는 것이다. “절었을 때에는 하루 3000번의 오체투지를 했는데, 지금은 1000번 정도에 불과하고 겨울이면 500번 정도 한다”는 후아 히 스님은 “오체투지는 자신을 비우는 수행”이라며 “비우면 비울수록 마음을 가득해진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플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중단사찰 가능

35년 3월 31일 35년 3월 31일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영능력개발과정 전수자모집

**전수내용**

- 1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몸을 통한 빙의 일반병 확인 하는 방법
- 2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영가의 대화법 (6화원칙 대화법)
- 3 사주와 전생의 수행능력과 빙의 영혼 구별법
- 4 고혈압, 당뇨, 아토피, 심혈관질환, 다이어트의 치유법, 영적인 질환은冷氣(냉기) (스님, 신도분, 종교인,누구나 환자 상담시 2개월 치유프로그램 시행)
- 5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작용력 이해, 영가 빛 천도법
- 6 과학적인 오오라장을 통한 빙의 수준의 이해
  - ◆ 저급빙의 -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빙의 영혼의 고통 호소
  - ◆ 중급빙의 - 마음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통한 방향과 혼돈
  - ◆ 고급빙의 - 삶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 의식에 따른 방향
- 7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법 (인체전기장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
  - ◆ 수강자 - 스님, 대체의학연구자, 종교인, 영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분, 삶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분, 깨달음의 이해,윤회의 법이해 이론, 책자(전수용) 실습 - 강의는 수강자와 협의 후 결정
- 8 효소핍질 : 사찰내의 난치병,빙의 환자치유, 목적 설치 상담

■ 보시금은 영혼 확인 상담비 : 십만원 전수료는 협의

풍운 합장

### 인체전기파동원 (고덕선원)

문의전화 : 010-9242-5259  
오시는길 :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642-21

#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 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